



루이스 해밀턴(맥라렌)이 20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타이어 제조기업 브리지스톤 주최로 열린 팬 사인회에 참석해 F1머신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D-10

남도의 가을을 달린다

고통은 순간... 고비 넘을때마다 희열

전북 정음MTB

‘고통은 순간이다.’ 전북 정음MTB(회장 김동조)의 슬로건이다. 슬로건 만큼이나 회원들은 순간의 고통을 참아내며 거친 산길을 오른 뒤의 희열에 꼭 빠져들었다. 정음MTB는 2005년 9월 개인적으로 라이딩을 즐기던 15명의 동호인들이 뜻을 모아 결성됐다. 김동조(49) 회장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취미생활로 시작했던 운동에 회원들 모두가 중독돼 버렸다”며 “턱 끝까지 가져오든 숨을 참고 거칠고 가파른 산길을 오른 뒤 내리막에서 페달을 밟을 때의 스피드와 스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희열이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매력이다”고 말했다.



스릴과 스피드, 그리고 흘린 땀방울 뒤에 오는 희열에 꼭 빠진 정음MTB 회원들. 이번 자전거 축제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정음MTB 제공)

전국 유수의 라이딩 참가

순수 아마추어 출신들로 구성된 팀을 꾸리다가 보니 처음에는 MTB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전남과 충청지역 MTB클럽들과 매년 연합 라이딩 행사를 개최하고 전국 유수의 라이딩 대회에 참가하는 등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결과 회원들은 프로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추게 됐다. 특히, 오영철(47) 회원은 짧은 경력에

도 불구하고 지난해 300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등 많은 대회에서 입상하며 산악자전거협회 중급마스터부 분 챔피언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철저한 사전답사와 코스 분석을 하며 대회를 준비하는 회원들의 숨은 노력의 결과다. 클럽의 흥일점 김수진(40) 회원은 “매번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달리는 설렘으로 대회를 준비한다”며 “대회를 앞두고 회원들이 함께 모여 코스를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다”고 밝혔다.

정음MTB가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에 임하는 각오도 남다르다.

숨은 실력 끌어내 1등 목표

김 회장은 “취미로 MTB를 즐기는 아마추어들이 모여 하는 대회라 보니 완주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지만 다른 팀과 달리 소수정예의 숨은 실력으로 꼭 1등을 차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ks@

“코리아 그랑프리 초대 챔프 되겠다”

한국은 'F1' 최연소 챔피언 루이스 해밀턴

세계 최고의 자동차 레이스 포뮬러원(F1)의 강자 루이스 해밀턴(25·영국)이 22일부터 사흘간 영남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장담하고 나섰다. 해밀턴은 20일 서울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포럼에서 타이어제 브리지스톤 주최로 열린 팬 사인회에서 “이번 주말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F1에 데뷔한 해밀턴은 올해 23세의 나이로 F1 역사상 최연소 챔피언 기록을 세우는 등 미하엘 슈마허를 잇는 F1의 최강자로 통한다.

F1 최초의 흑인 선수이기도 한 그는 16라운드까지 진행된 올해 F1에서 누적 승점 192점으로 4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라고 밝힌 그는 “한국에서 F1이 개최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경기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양 서킷은 이번에 참가한 모든 레이서가 처음 접해보는 곳”이라며 “내일 오전 현장에 내려가 풍향과 브레이킹 포인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킷을 직접 걸어 다녀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타이어가 이 서킷에 어떻게 반응할지

중요하다”며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파악해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해밀턴은 “외국에서 여차친구와 불고기를 자주 먹어서 다녔는데 이번엔 호텔 밖의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다”며 “영양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팬 사인회는 오전 11시부터 45분가량 진행됐으며, 해밀턴은 일반인 70여명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준 뒤 취재진을 위해 설치된 경주용 차량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는 등 시종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SK, 통산 세번째 가을잔치 주인공

KS 삼성과 맞대결서 4연승... MVP 박정권

2010프로야구가 비풍의 독무대로 끝났다. SK 와이번스가 1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4-2로 승리를 거두며 2010 가을잔치의 주인공이 됐다. 정규리그에서 10승9패의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던 2위 삼성과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시리즈는 예상과 달리 SK의 일방적인 공세속에 4경기만에 승자가 결정됐다. 시즌이 끝난 후 긴 공백에도 불구하고 SK 타자들은 1차전부터 흥분표를 날리며 날카로운 타격감을 선보였고, 좌완 군단을 이끈 SK 불펜진은 삼성의 좌타자를 완벽하게 봉

쇄하며 4경기를 그대로 씌어담았다. 이날 승리로 2007·2008년 한국시리즈 2연패에 성공했던 SK는 지난해 준우승에 이어 4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올라 세 번의 우승을 차지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2인자로 끝난 2009년의 설움도 한꺼번에 날렸다. 지난해 SK는 정규리그 막바지 19연승이라는 맹추격을 하고도 KIA의 정규리그 1위 탈환에 실패한 뒤, 7차전까지 이어진 한국시리즈 대결전에서는 KIA 타자들의 끝내기 한방에 준우승에 그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SK는 올 시즌 정규리그 1위 독주에 이어 4연승 행진으로 손쉽게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달성하면서 2010시즌을 독점했다. 우승자 SK는 23억1000만원에 이르는 우승 배당금과 한국-대만 챔피언십(11월4~5일), 한일 클럽 챔피언십(11월13일) 출전권을 얻었다. 한편 한국시리즈 최우수 선수의 영예는 SK 외야수 박정권에게 돌아갔다. 박정권은 1차전 승리에 뼈를 박은 투런 홈런에 이어 4차전에서 2타점 2루타를 날리는 등 한국시리즈에서 타율 0.358(14타수 5안타) 6타점으로 맹활약하며, 취재기자단 투표에서 32표를 얻은 포수 박정권을 6표차로 제치고 대회 MVP로 선정됐다. 4차전 선발로 출격한 SK 클로버는 4이닝 무실점 호투로 경기 MVP를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생활체육대회 25일 순천시 개막

22개 시·군 5000명 참가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열린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제14회 전라남도민의 날을 기념해 열리며, 22개 시·군 5천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고강도의 명예를 걸고 선의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각 시·군대표들은 이번 대회부터 정식종목에 편입된 합기도를 비롯해 단축마라톤(육상), 배구, 씨름, 테니스 등 15개 종목과 민속경기 3종목 등 총 18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민속경기에는 줄다리기와 새끼꼬기 및 짚신삼기, 쌀가마고달라기(400m 계주)가 포함됐다. 전남도민과 전남생활체육 동호인의 화합찬친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지난 1990년 나주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 대회까지도 두 22회에 걸쳐 열렸다. 지난 1996년 10월25일을 도민의 날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면서 1997년 9회 대회부터는 도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합평군이 가장 많은 344명의 선수가 출전시키고, 화순과 해남이 각각 265명과 265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종목별 참가인원은 축구가 473명으로 가장 많고 배구 305명, 배드민턴 292명의 선수들이 경쟁을 펼친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 문정초 정상

전국초등배구대회

광주 문정초가 전국초등배구대회에서 우승했다. 문정초가 지난 18일 강원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3회주계배 전국초등배구대회 남자부 결승에서 강원 울곡초를 세트 스코어 2-1로 꺾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문정초는 최지현(6년)이 최우수선수에 선정됐고, 장현승(6년)은 세터상을 받았다. 박길남 코치는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광주 치령초는 여자부 준우승팀이 됐다. 광주문정초는 2010시즌 마지막 전국대회로 여자 11팀과 남자 13팀 등 24개팀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다. /김여울기자 wool@

산행안내 10월 22일(금) 10월 23일(토) 10월 24일(일) 10월 25일(월) 10월 26일(화) 10월 27일(수) 10월 28일(목) 10월 29일(금) 10월 30일(토) 10월 31일(일)

10월 24일(일) ▲산악회 및 오대산 노인일-소금강 10월24일(일) 5시30분 광주역 출발(문예회관 후문 경유) *다음카페: 산악회광

10월 26일(화) ▲광주월드뷰산악회 경북 우왕산 10월26일(화) 7시 상무지구 도시철도공사 출발(7시10분 남부체육관주차장/건관리출발/7시20분 신세계교원공회/7시30분 문예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등산산악회(T.011-638-4638.010-4606-4575)

10월 30일(토) ▲남도산사랑 보은 속리산 단풍산행 10월30일(토) 5시 롯데마트드림점, 5시15분 시청, 5시30분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남도산사랑 T.011-741-9239

11월 11일(목) ▲광주오름산악회 무주 남덕유산 11월11일(목) 6시 남덕유산-사गत봉-무령산(동남남산)-황정(B.C코스)출발(단풍,양동,조방) 11월11일(목) 6시50분 남부체육관 주차장 출발(7시30분 남부체육관 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오름산악회 T.010-4913-7897

광고접수안내 ☎ 227-9600 FAX 227-9500 본실 종 류:악어용 지급일자: 2011년 2월 28일 수표번호: 24700203545 발행인: 8월경기주식회사 역 면 적: 33,000,000원 지급장소: 광주은행 본점 지급 일자: 2011년 9월 14일 최후소재지: 이태원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본 법인은 2010년 10월 18일 이사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2010년 12월 21일까지)에 그 채권액을 본 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광주 문화에 출진 흥위원회 광주 광역시 남구 사동 177-35 청산인 김우성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사건번호: 2010년 단 1539 사 명 자: 김대용(790729-1550919) 최후주소: 광주 서구 양촌동 1229 상춘주공아파트 101-1514 등록기준지: 광주 서구 유촌동 168-2 위 망 김대용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0년 10월 21일 *공고인: 이재형 *한정승인수리일: 2010년 10월 12일 *공고기간: 2010.10.21 ~ 2010.12.20 *신고 처: 광주 서구 양촌동 1229 상춘주공아파트 101-1514 이자영(010-9213-6944)

www.daeontour.com 해외 트래킹 출발단 모집 *가치여행 *성지순례 *골프투어 *해니문 (주)대원여행사 062 526-7000